

◎ A Draft of Description Formats for Article of the KLA Bulletin

“도협월보”

記事作成準則試案

崔 昌 均
(中央大學校 圖書館)

1. 머리말
2. 記事의 構成
3. 題目, 著者, 章節의 表示
4. 主體, 略語 및 圖表
5. 腳註와 參考文獻
6. 抄 錄
7. 追 記

I. 머리말

지난 6月末 第2次 出版分科委員會에서 「도협월보」의 發展方案을 論議하던중 우선 體制와 形式만이라도 改善해보자는 意圖에서 本稿가 筆者에게 委任되었다.

「도협월보」의 比重이나 筆者의 能力을 생각할 때 비록 抄案의 試案이긴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問題인줄 알면서도 사양하지 않은것은 그 必要性을 누구보다도 결실히 느껴왔기 때문이다. 다만 問題意識만을 가지고 아무런 研究도 없이 平素에 가지고 있던 所信을 밝히는 것이며 出版分科委員會와 協議를 가진것도 아니다. 또한 이미 編譯發表된 ISO의 學術論文作成準則¹⁾이나 그 原案에 대하여 깊이 研究한 바가 없는데 현재 政府의 支援下에 ISO準則을 母體로한 標準案이 作成中²⁾이라고 한다. 이 案이 發表되어 普及되면 이것이 優先되어야 하며, 別途의 準則을 갖는것은 意味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부터 이에대하여 關心을 기울여 國際的標準에 따른 「도협월보」記事作成準則이 마련되는 기틀을 마련케 하기 위하여 우선 試案을 提示하는 것인데 筆者의 能力과 時間紙面의 制約으로 누락되거나 잘못된 것이 많을 줄 안다. 더구나 學術論文뿐 아니라 記事全般을 包括하는 만치 소홀한점이 많을 것이다. 다만 本稿는 「도협월보」記事作成準則의 必要性을 느낀 한 個人的 提案으로서 館界의 論議를 불러일으키는 契機를 마련코자 하는 것이다.

2. 記事의 構成

記事의 性質이나 筆者의 性格에 따라 그 組織의 차이나 章節의 區分은 一致할 수 없는 것이나 다음과 같은 順序의 準則은 一般的으로 지켜야한다.

2.1 題冠部

題目, 筆者, 筆者의 所屬機關名, 目次, 抄錄을 記述한다.

2.2 結論部

記事의 目的과 內容(問題의 提起, 假說), 方法, 範圍(限界點)이 반드시 表示되어야한다.

2.3 本論部

理論의 背景을 論理的으로 提示하기 위해 筆者의 自意에 의하여 構成하나 諸論에서 밝힌 目的과 內容에서 거리가 먼것은 될수록 피한다.

2.4 結論部

本論에 提示한 理論의 背景과 主張을 論理的으로 集約하여 筆者의 主張을 세운다. 200字原稿紙 30枚以上 일때는 要約結論을 末尾에 添加하며, 學術論文일때는 이를 英文抄錄하여 題冠部に 삽입한다.

2.5 參考文獻部

腳註는 該當頁末尾에 달며, 參考文獻目錄은 結論部 末尾에 列舉한다.

1) 鄭曉漢 譯編, 國際的標準에 따른 學術論文作成法準則. 서울. 中央大學校圖書館學校. 1971, 34p.
 2) 鄭曉漢 教授가 그 作成을 委性받았다고 하는데 同教授에 의하면 ISO準則 全文을 번역하여 定刊物에 대한것만 韓國的으로 標準化하기 위하여 여러 形式을 調査中이라고함.

3. 題目, 著者, 章節表示

3.1 題目

제목과 목차를 짧고 簡潔하게 主題를 抱括적으로 表現해야 한다. 研究의 方法이나 副隨的인 限界性을 밝힐 必要가 없고, 副題는 原則적으로 使用하지 않으며, 題目은 章節에 使用한 內容의 最上位概念을 採擇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即 題目에서 「……實際의 研究」, 「……文獻의 考察」 등의 表現을 쓰지 않으며 最上位概念이라 함은 記事索引을 念頭に 두라는 것이다.

3.2 著者

題目的 右側下端에 漢字로 記入하며 學位와 職位를 省略한 所屬機關名을 姓名下部에 ()하고 副記한다.

3.3 章節

章節의 番號매김은 5段階를 넘지 않게 하며 第1段階章의 表示는 아라비아숫자 1,2,3……, 第2段階는 1.1 1.2……2.1 2.2, 第3段階는 A,B,C……, 第4段階는 (1) (2)(3)……, 第5段階는 a,b,c……로 番號 및 記號를 매기고, 다른 숫자나 文字를 쓰지 않는다. 各章節에서 序論이 必要할 때는 番號매김없이 한字 띄어서 始作한다.

4. 文體, 略語 및 圖表

4.1 人稱

尊稱이나 卑稱은 原文轉寫가 아니고는 原則적으로 使用하지 않으나 註로서 學位나 尊稱은 許容된다. 따라서 “拙稿, 拙著” 따위의 表現은 쓰지 않으며 本人의 人稱은 “筆者”로 統一한다. 間接的 表現의 筆者같은 人稱外는 3人稱만 使用한다. 即 “우리나라, 우리도서관, 우리들” 같은 表現은 쓰지 않는다.

4.2 人名

中國이 韓國人名같이 姓으로서 區分性이 없는 경우를 除外하고는 反復되어 使用될때에 姓만을 本文에 使用하며 原語로 表記한다.

4.3 時制

未來形은 原則적으로 使用하지 않고 過去形과 現在形만 區分하여 使用하는데 過去形은 特定研究結果의 引用, 使用한 方法의 提示結果의 陳述에 쓰고, 現在形은 定義의 斷定, 一般的인 理論의 註없는 引用, 論議에 使用한다.

<보기> 過去形

方法: 實際로 調査하였다.

結果: 調査結果 ○○○이었다.

現在形

定義: 本論에서 目錄이라함은 ……을 말한다.

理論: 李載喆에 의하면 韓國人姓名間의 稱하는 필요없다.

論議: 情報科學과 圖書館學은 別個의 것이다.

4.4 外來語

A. 모든 述語는 譯語를 使用하며 原語를 ()안에 小文字로 밝혀준다.

B. 適當한 譯語가 없을 때는 原語의 音を 文教部案의 表記法에 따라 한글로 적고 原語를 ()에 밝혀준다.

C. 固有名詞는 原語대로 적는다.

4.5 略語

A. 韓國語의 略語는 될수록 되하나 一般化된것은 그대로 쓴다(圖協, 文公部, 梨大……).

B. 一般化된 外國略語는 原文그대로 略字表示없이 大文字로 쓴다(USIS, ALA……) 그러나 一般化되지 않은것은 괄호안에 全語를 記入해준다.

C. 韓國語를 外國文字로 記號化하여 使用할수 있다.

4.6 句讀點과 띄어쓰기

A. 句讀點은 定說이 없으므로 便宜대로 使用한다.

B.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을 尊重하나 慣用句, 複合語, 固有名詞 등은 붙여쓴다(할수없다, 미바람, 서울대 학교중앙도서관……).

4.7 引用表示와 符號

A. ., 外的 符號는 原則적으로 使用하지 않는다.

:은 補充的인 說明에 限하여 使用한다.

B. 괄호는 ()만을 原則적으로 使用하며 重復으로 使用할때만 < >를 쓴다.

C. 짧은 引用句는 “ ”로, 20字以上の 引用은 「 」로 表示한다.

D. 언더라인(Underline)은 使用하지 않으며 注意를 要하는 部分은 꼬딕活字表示로 代行한다.

4.8 表와 圖表

表와 圖表는 各各 一連番號를 매기며 相應한 題目을 붙여야한다. 圖表는 折線圖表(Polygon)를 原則으로 하고, 반드시 먹물로 白紙에 그려 添加해야한다.

5. 脚註와 參考文獻

5.1 脚註

A. 脚註의 使用原則

- (1) 原文에 나타내기 어려운 補充的인 說明, 引用, 謝意, 著者事項에 限하여 使用한다.
- (2) 本文보다 작은 아라비아숫자로 一連番號를 매기며, 文章, 該當用語, 句節의 末尾上端에 둔다.
- (3) 脚註文은 100字以內로하며, 該當頁의 下段의 橫線을 긋고 記入한다.

B. 引用脚註의 記述形式

(1) 東書

- a. 司空哲, 도큐멘테이션概說. 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698, pp.106~20. (韓國圖書館學叢書 13)〈共著, 編譯表示는 圖協의 編目規則에 따른다〉
- b. 鄭駉謨, 情報科學의 屬性과 情報科學. 서울, 中央大學校圖書館學會, 圖書館學報 vol.2 : '73, 6 (年度 단 記載할 때는 1973) pp.129-171.
- c. 李基文, 斷層時代의 讀書. 서울, 中央日報社, 月刊 中央 vol.20 : '69, 11. pp.142~45. (月刊은 可及의 通卷만 적는다. 卷號는 vol. ×× No. △△)
- d. 金桂淑 外8, 「教授停年」 彈力性을. 서울, 한국일보, '73, 8, 14. p.5.
- e. 趙善姬, 韓國科學技術雜誌史小考. 서울, 延世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3, (受位年度) pp. 4-10.
- f. 李圭景, 五洲衍長箋散稿, 影印本. 서울, 東國文化社. 1959, vol.1 : p.16. (古書나 古典은 著者를, 原典引用은 出版數와 年度를 省略할 수 있다)

(2) 洋書

- a. Ella V. Aldrich, Using Books and Libraries, 5th ed. New Jersey, Prentice-Hall. 1967, p.21.
- b. David Heron, Telefacsimile in Libraries: Progress and Prospects. Paris, Unesco, Unesco bulletin for libraries. vol. 23, No. 1 : 8-13 Jan.-Feb. 1969.

B. 脚註의 用語와 그 使用

한 視野의 兩面(on the same open double page)에서 한 하나의 參照가 重復될때에 限하여 다음의 記號로서 省略記入한다.

- idid. (同上書·文) 다음에는 頁數만 記載한다.
- id. (同上著者) 다음에는 著者만 省略하고 全部記載한다.
- loc. cit. (同上) 다음에는 아무것도 記載치 않는다.
- op. cit. (前掲書·文, 上掲書·文) 다음에는 著者各과 頁數만을 記載한다.

5.2 參考文獻

A. 記述形式

脚註와 같고 다만 西洋人名은 姓名의 順으로 倒置하여 쓴다.

B. 排列

國籍과 文字에 相關없이 쓰여진 文字의 한글發音에 의한 가까나順으로 混合排列하는 것을 原則으로 한다.

6. 抄錄作成

6.1 作成要領

記事의 內容과 結論, 記事內의 새로운 情報를 要約해야 하며 本文에 言及되지 아니한 內容이나 主張을 添加해서는 안되며 簡潔한 文章으로 作成한다. 學術論文일때는 英文으로 하여 題冠部에 삽입한다.

6.2 抄錄의 길이

原則적으로 200~250날말을 超過해서는 안된다.

7. 追記

形式의 標準化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脚註와 參考文獻의 記述形式에 대하여는 充分한 例示를 못하였다. 特別히 이 部分은 國際의 標準이 必要한데 ISO準則이 國際적으로 普及되지 않은 實情이지만 標準化하는 이상이에 따르고 싶은것이 筆者의 心情이나 우선 館界의 意見を 듣고 싶어 ISO準則에 立脚하여 多少變形을 試圖하였다. 이 形式에 대하여는 ISO準則을 처음 紹介한분과 斯界碩學들의 意見を 듣고 싶으며 아울러 館界의 活潑한 論議를 期待한다.

그리하여 明年一月號부터는 確定된 準則에 의한 「도협월보」가 刊行되고, 이것을 契機로하여 館界만이 아니라 標準化를 試圖해야 겠다.

문화유산 도굴 말고

해의유출 방지하자

대화한다 방심 말고

오는 간첩 잡아내자